

박삼구 그룹 모태 금호고속 재인수 완료

매입금액 4375억원... 그룹재건 속도 마지막 퍼즐 금호타이어는 '시계제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년여 만에 그룹의 모태 기업인 금호고속을 되찾으면서 그룹 재건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그룹 지주사인 금호홀딩스는 지난 23일 컨서스PEF(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고속 지분 100%에 대해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해 4375억원에 금호고속 인수를 완료했다.

◇지주회사 수익성 재무건전성 강화 위해 우선 인수=이번 재인수 완료는 금호타이어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금호고속을 먼저 인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호고속은 박 회장의 선전인 고 박인

천 회장이 택시 2대로 유통물류 업계에 뛰어들며 그룹을 일구게 된 모태가 된 기업이다. 금호고속은 박 회장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연이어 인수했다가 그룹이 휘청이면서 2012년 지분 100%가 IBK펀드에 넘어갔다. 박 회장은 2015년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금호고속 지분을 다시 매입한 뒤 금호산업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곧바로 컨서스 PEF에 재매각했다.

매각 당시 2년 3개월 안에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은 박 회장이 23일 콜옵션을 행사해 인수자금을 납부하면서 5년여 만에 그룹 품으로 돌아왔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 기업으로, 이번 지분 인수를 완료함에 따라 그룹 재건의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지주회사인 금호

홀딩스가 우량 기업인 금호고속을 인수함에 따라 지주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재건 마지막 퍼즐 금호타이어는 '시계 제로'=하지만 이번 금호고속 인수로 박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의 2개 축으로 제시했던 하나는 해결하게 됐지만, 마지막 남은 퍼즐로 꼽히는 금호타이어 인수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박 회장이 1967년 입사하면서 경영수업을 시작한 곳으로 그룹 재건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다.

특히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로 매각을 완료하게 되면 박 회장으로서 금호타이어를 되찾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점에서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다. 최근 상표권 사용 조건을 둘러싼 박 회장 측과 채권단의 차익게임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향배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강대강 대립 속에서도 상표권

사용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블스타는 매각종결 선결 요건으로 상표권의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과 자유로운 해지, 사용 요율 매출액의 0.2%를 요구했으나 박 회장 측은 20년 사용과 해지 불가, 사용 요율 0.5%로 수정 제안을 했다. 이에 채권단은 지난 12일에 기존의 더블스타 요구안을 재차 요구했고, 박 회장은 이를 다시 거절하면서 답보상태다.

한편 채권단은 조만간 상표권 사용조건과 관련해 더블스타와 협의해 박 회장에게 수정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블스타와 눈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7일 또는 28일 주협의를 열어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인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박 회장 측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지 기대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세무사회 총회...김영록 회장 연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3대 회장에 김영록 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선출했다.

김영록 회장은 지난 2015년 제22대 회장에 출마해 당선의 영광을 안은 후 2년간 광주지방세무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했으며 연대 부회장은 박봉식 세무사와 김성수 세무사가 당선됐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한현준·이종탁·이재학 부회장, 광주지방국세청 김희철 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회장은 "끊임없이 회원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이 되겠다"며 "유사 전문자격사 간의 영역 다툼, 담핑 수입경쟁, 사무소 직원 인력난 등 세무사에게 대내외적으로 처해 있는 난제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록 회장은

"분회와 협력하는 지방회, 소통과 상생하는 지방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발전하는 지방회를 만들어 연구 결과물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지역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동반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움과 협조로 광주청은 세입징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세법집행기관으로서 위상도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며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 편안함을 드리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는 2016회계연도 회무보고와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지난 1년 동안 지방회 발전에 협조해 준 국제공무원,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시상으로 노고를 치하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귀뚜라미문화재단 광주 학생 47명에 장학금 4000만원

내달 7일까지 전국 순회 26개 도시 10억원 수여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설립한 (재)귀뚜라미문화재단은 지난 22일 광주 서구 상무리컨벤션에서 '귀뚜라미문화재단 2017년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380여 명의 학부모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지지 단체와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한 47명에게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지난 4월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7월7일 제주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26회에 걸쳐 모범학생 1200여명에게 총 10억원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1985년에 설립한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지난 30여 년간 220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으로 발전했다. '최소한의 교육 보장,



지난 22일 광주 서구 상무리컨벤션에서 '귀뚜라미문화재단 2017년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식'이 학부모와 재단 관계자 3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귀뚜라미문화재단 제공>

누구나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여야 한다'라는 설립이념에 따라 전국 각지의 저소득 가정자녀와 소년 소녀 가장, 모범학생 등 5만여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귀뚜라미문화재단 관계자는 "귀뚜라미보일러가 각 가정에 따뜻함을 불어넣는 것처럼 백년대계인 교육 현장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

가겠다"면서 "따뜻한 이웃으로서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나눔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인당 3억5천만원...자영업 빛도 비상

지난해 말 520조...제2금융권 증가율 높고 부동산임대업 쏠림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전체 빚 규모가 급증해 5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를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5

일 알려졌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약 150만 명의 총부채는 약 520조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총부채는 2015년 말 약 460조

원이었다. 1년 만에 60조 원(12~13%) 늘어난 것이다. 자영업자 1인당 3억5000만원꼴로 빚을 떠안은 셈이다. 원화 대출뿐 아니라 개인 병원의 의료기기 리스나 엔화 대출 같은 외화 대출까지 포함한 규모다. 사업자대출을 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받은 것도 포함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사업자대출이 약 320조원, 나머지는 가계대출이다. 실제로 주택을 사려고 빌린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집을 담보로 잡힌 경우도 있다. 자영업자 부채의 연체율은 아직 안정적 수준이다. 다만 제2금융권의 증가율이 높고 업종 쏠림현상이 있다는 점에 금융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총 520조원 가운데 은행권 빚이 360조 원, 제2금융권이 160조원이다. 상호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20% 넘게 급증했다. /연합뉴스

광주 中企 해외 식품시장 진출 기회

광주상의, 30일까지 홍콩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17 홍콩 국제 식품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홍콩 국제 식품 박람회(Hong Kong Food Expo 2017)는 아시아 최대의 식품 박람회 중 하나로 올해 28회째를 맞고 있다.

홍콩 무역 발전국 주최로 오는 8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홍콩 종합전시장에서 열린다.

국내에서는 제빵·제과·음료·가공식품·유제품·건강식품·과일·채소·육류·해산물·인스턴트식품·커피 등 모든 식품과 식품 관련 서비스 업종이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6개국에서 1400여 기업이 참가하고, 62개국에서 2만1000여명의 전문바이어와 49만여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의 기회가 제공됐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박람회 부스 임차료 80%, 참가자 항공료 70%(최근 3년 이내 참가기업 50%), 통역료·판도 물품 운송료 100%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 희망 기업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대성기자bigkim@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0	22 27 31 42 43	1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253,299,391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6,764,427	45
3	5개 숫자일치	1,717,782	1,749
4	4개 숫자일치	50,000	89,221
5	3개 숫자일치	5,000	1,520,831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 임대분양

나주의 중심상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점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천시장
- 2~5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영
- 6 743㎡ | 전문병원원 및 푸에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만원 / 650만원

4만 7천원부터

농업 업무자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하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